치 사

생명의 소리와 향기가 새롭게 다짐하는 모두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위수여 또한 종도 모두에게 활력을 전하는 봄소식으로 전해옵니다. 깊은 마음으로 축하하고 그간의 진력을 치하합니다.

더불어 우리 시대의 불교교육 발전과 후학양성에 진력을 다하시는 총장스님과 교수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심과 지원으로 정성을 다해온 교육원과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앙승가대학은 명실공히 한국 불교학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더욱이 전통과 현대교육을 훌륭하게 접목하여, 불교학이 시대의 흐름에 조응할 수 있다는 것은 종단의 커다란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느 혼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종단을 중심으로 교직자와 동문스님들의 헌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학문을 연마한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이제는 종단 구성원으로서 힘찬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사부대중 모두에게 마땅히 축하받을 일이고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하지만, 그만큼 책무가 따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도 고맙게도 천년의 유산이라는 불은을 받았지만, 다시 천년의 불사를 이루어 보답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로서, 남다른 각오를 새롭게 하여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각자의 위치에서 위법망구의 서원으로 종교인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모교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부대중의 기대와 시대의 요청에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하고 그곳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미래불교의 역할이자 과제입니다. 종도라는 자부심으로 항상 당당하게 정진하길 바랍니다.

종단 또한 화합을 바탕으로 혁신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시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진중한 고민과 실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종단의 큰 흐름을 읽어가면서 종도 구성원으로서 스스로가 백년대계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다듬어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아쉬움이 있다면 앞선 선배들이 그랬듯이 후배에게 베풀어 주길 바라며, 장도의 새 출발에 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취를 거듭 축하하며, 여러분의 정진과 성취가 많은 사람들과 사회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2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